STARTUP ECOSYSTEM REPORT
2026 CHEONAN

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 Vol. 12

천안





STARTUP ECOSYSTEM REPORT

2026

CHEONAN

창업진흥원 KOREA START UP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 Vol. 12

천안

연구기관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협력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더브이씨

'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는 지역 창업생태계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7개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도시 단위로 분석하여 발간합니다.

* 2026년 8월 : 판교 / 9월 : 천안 / 10월 : 세종 / 11월 : 부산 / 12월 : 창원
* 2027년 1월 : 경산, 나주

본 리포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공시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시에 누락되거나 오기된 정보는 정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처 창업진흥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발행일 2026년 9월
홈페이지 https://ccei.creativekorea.or.kr/
디자인 디자인집

본 리포트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03 숫자로 보는 천안 창업생태계

05 천안 창업생태계 현황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서 자라나는 혁신창업의 씨앗 천안 창업생태계

예비창업부터 도약기까지, 전주기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천안형 스타트업 지원

지자체가 설계하고 지원기관이 육성하는 천안 창업생태계

창업자가 바라본 천안 창업생태계

11 천안 창업생태계 특화산업 분석

HBM 생산의 핵심 거점, K-반도체의 마지막 관문

국내 생산의 58%,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창업

충남 최대 부품 집적지에서 미래 모빌리티 창업 거점으로

14 천안 창업생태계 진단

천안 창업생태계를 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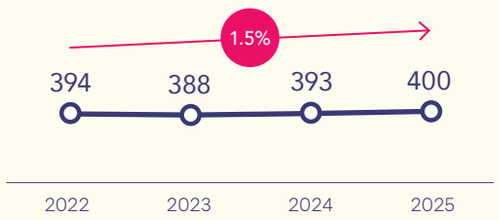
천안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기획하다



2026
CHEON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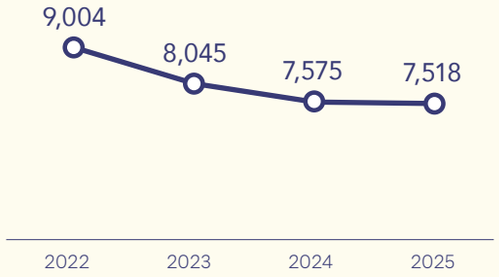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천안 창업생태계

경제활동 인구(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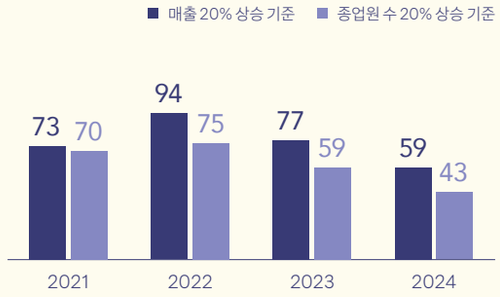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지역별고용조사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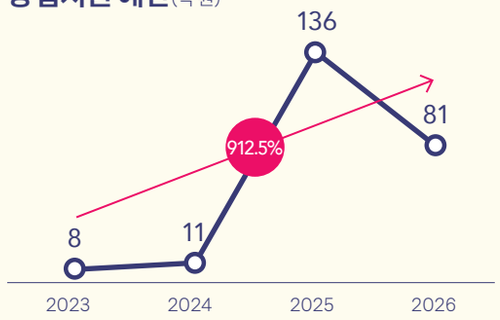
* 충남 소재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각 연도), 창업기업동향

고성장기업 수(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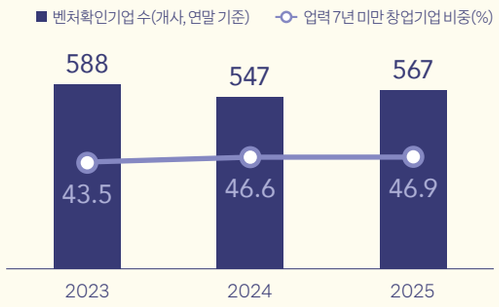
자료: STEPI(2025), The Scaleup Landscape in Korea

창업지원 예산(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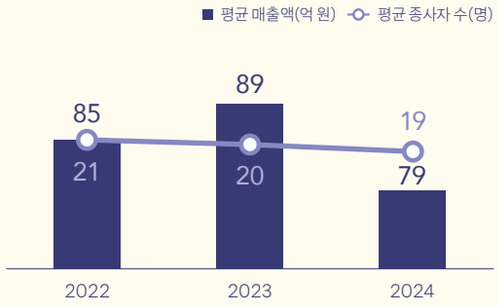
* 충남 소재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각 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벤처기업 확인 수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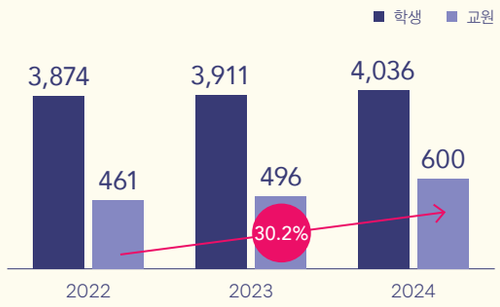
자료: 벤처기업확인기관 내부 자료(2026.6.15 기준)

벤처기업 평균 매출액 및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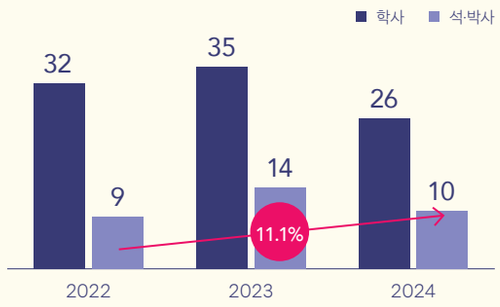
자료: 벤처기업확인기관 내부 자료(2026.6.15 기준)

학생 및 교원 창업기업(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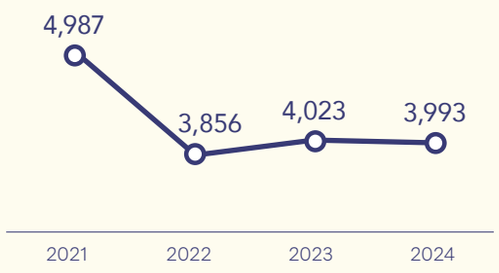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서비스

이공계 인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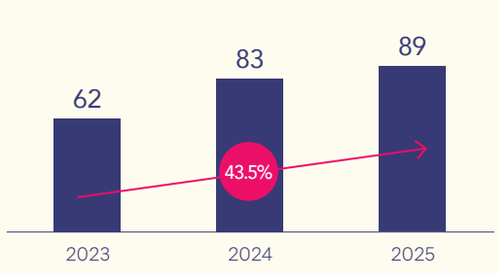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서비스

특허 등록 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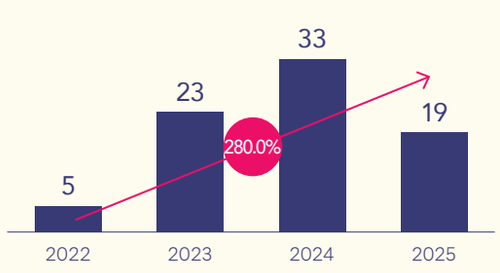
* 충남 소재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각 연도), 지식재산연보

천안시 소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육성기업(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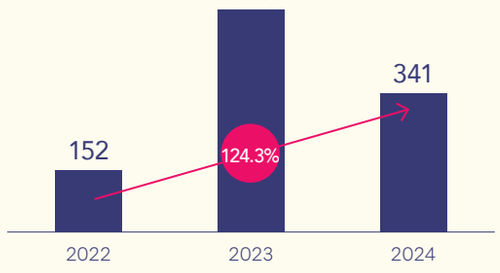
자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2026)

천안 TIPS 선정 기업 수(개사)



자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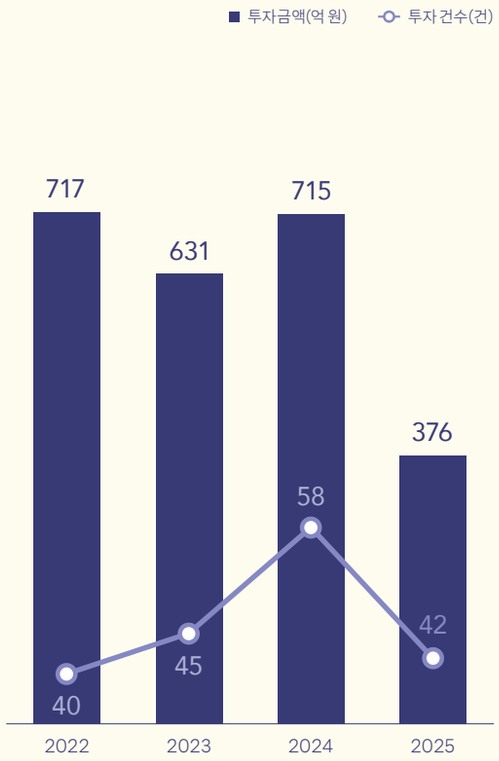
천안시 기술창업기업 고용창출(명)



자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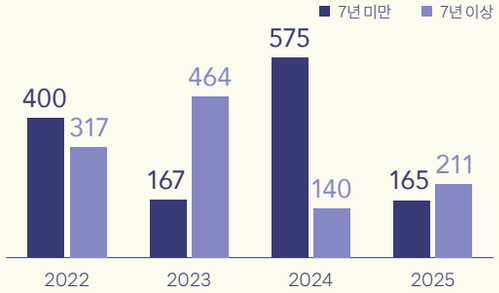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천안 창업생태계

벤처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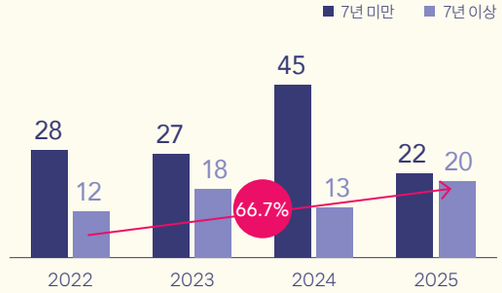
* 천안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금액 및 건수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력별 벤처투자 금액(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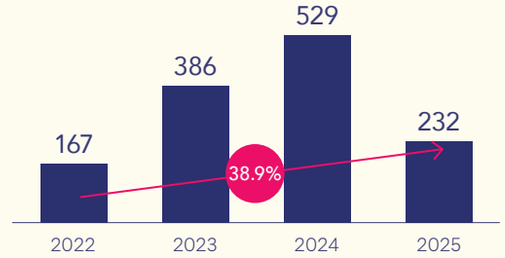
* 천안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금액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력별 벤처투자 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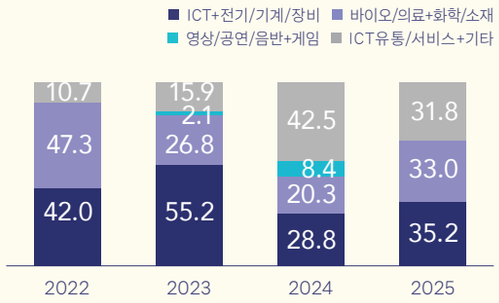
* 천안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건수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모태출자펀드 투자금액(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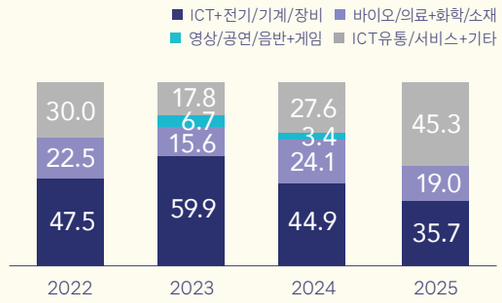
* 천안 소재 기업에 투자된 모태출자펀드 금액(천안 기준)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종별 벤처투자 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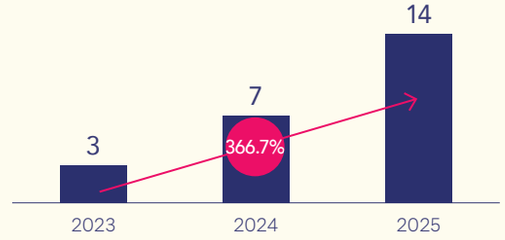
* 천안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금액 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종별 벤처투자 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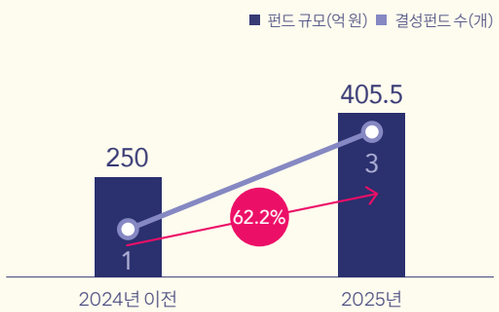
* 천안 소재 기업에 투자된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건수 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천안 소재 민간투자사(AC·VC) 현황(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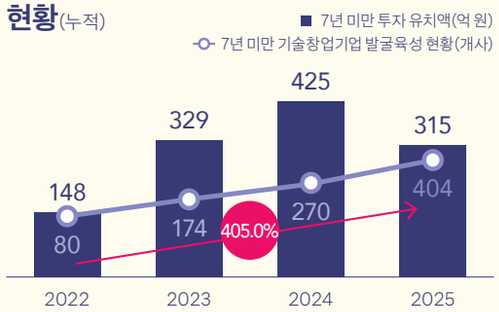
자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2026)

천안시 창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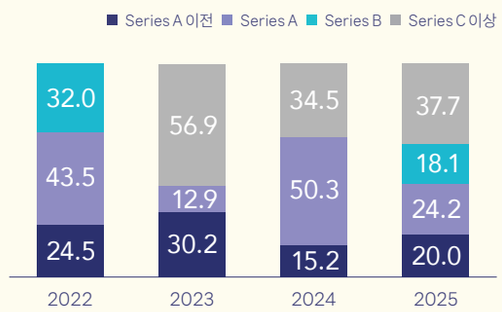
자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2026)

창업기업 투자유치 및 기술창업기업 육성 현황(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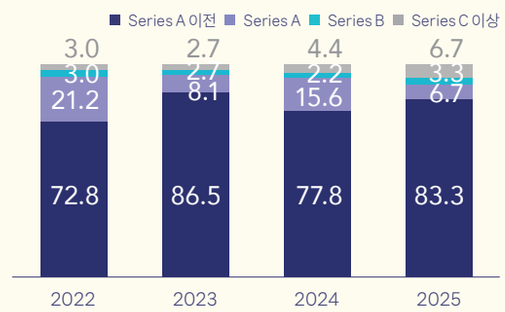
자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2026)

라운드별 투자 금액 비중(%)



* 천안 소재 기업 기준
자료: (주)더브이씨

라운드별 투자 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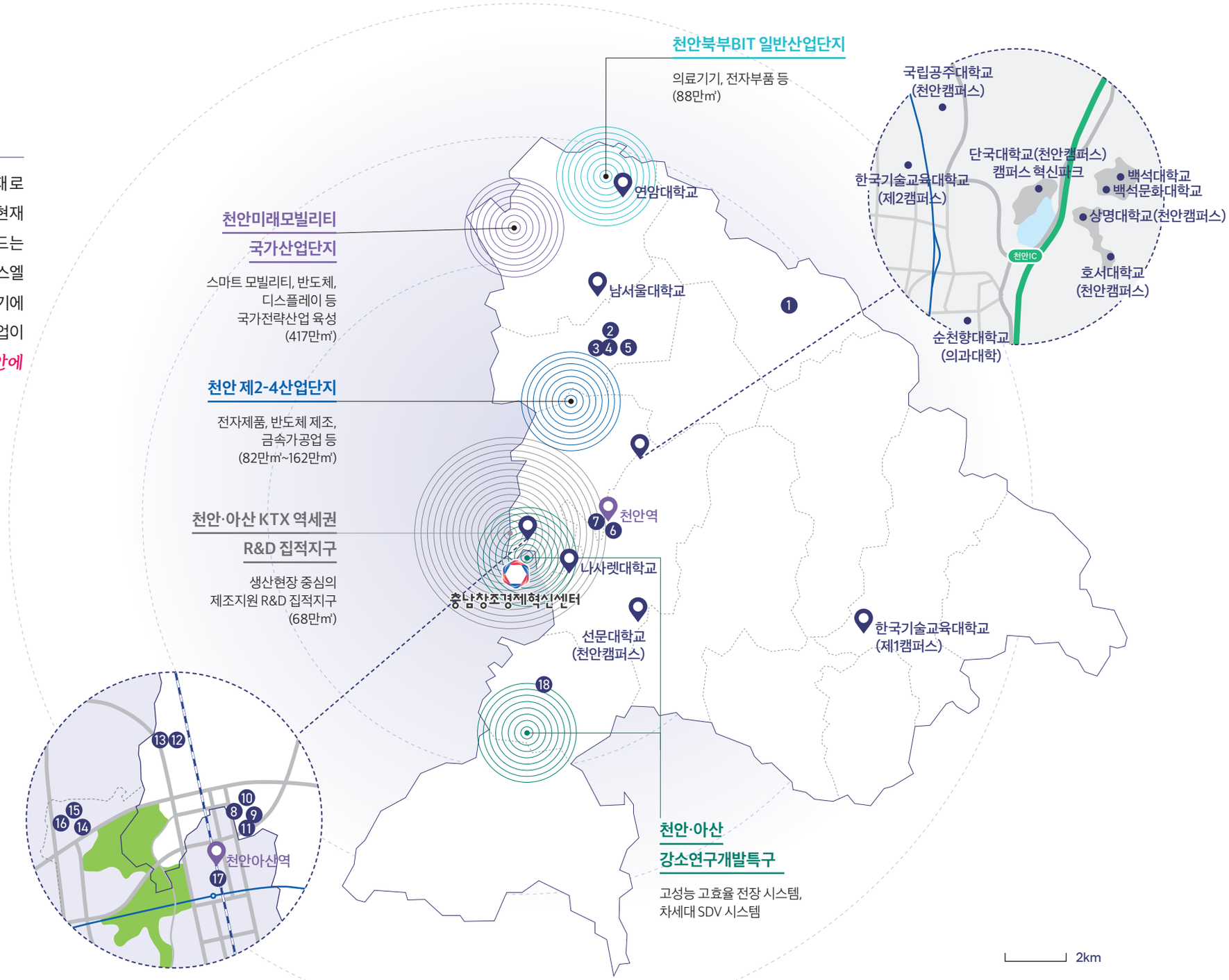


* 천안 소재 기업 기준
자료: (주)더브이씨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서 자라나는 혁신창업의 씨앗 천안 창업생태계

창업기업의 기술 실증에 유리한 제조업 기반의 지역경제

천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화학·소재로 이어지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천안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와 협력기업이 만드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을 갖추고, 현대모비스·HL만도·에스엘 등 1차 협력사가 밀집한 ***충남 최대의 공업도시***이다. 그렇기에 천안 창업생태계의 출발점은 기존 제조기업이며,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검증할 현장과 납품할 수요처가 도시 안에 존재한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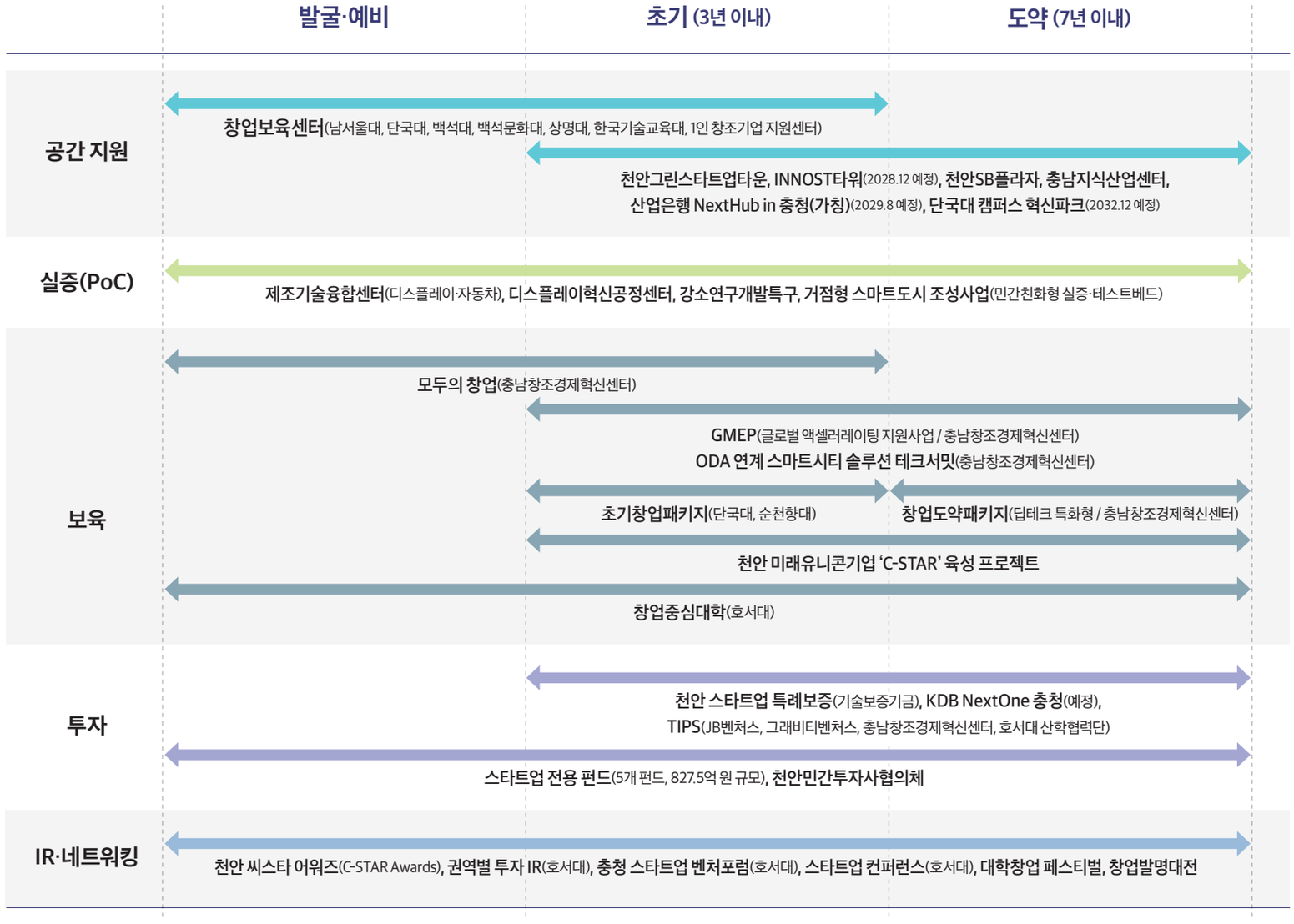


❶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❷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❹ 천안SB플라자
❺ 충남테크노파크
❻ 충남콘텐츠진흥원
❼ 천안그린스타트업타운(INNOST타워)
❽ 산업은행 NextHub in 충청(예정)
❾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❿ 충남혁신벤처타운
⓫ 충남창업마루나비
⓬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⓭ 충남지식산업센터
⓮ KTL 바이오의료연구센터
⓯ 수면산업진흥센터
⓰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연구센터
⓱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⓲ 한국자동차연구원

예비창업부터 도약기까지, 전주기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천안형 스타트업 지원

천안 창업생태계 지원사업 현황

천안 창업생태계 지원사업은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기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와 TIPS 등의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천안 창업생태계 내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연속 성장이 가능***하다. 또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한 창업공간이 있으며, 캠퍼스 혁신파크, 그린스타트업타운, 스타트업파크 등 중기부의 창업 지원 인프라 관련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천안시도 자체 창업기업 지원사업인 ***'C-STAR'***를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과 수행해 오면서, 해당 기관의 역량을 파악하고 ***창업지원사업의 거버넌스를 조정할 역량***을 갖추었다.



천안 미래유니콘기업 'C-STAR' 육성 프로젝트

창업 7년 이내의 천안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천안시 자체 창업지원사업이다. 2024년 1기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4기 선정을 완료하였다.

구분	지원 내용
맞춤 지원	• 기업별 니즈 파악 • 기업별 진단·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실증 지원	• 부서 현안 수요를 발굴하여 기업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검증 • 시범구매·시범운영 연계하여 초기 레퍼런스(실증사례) 확보 지원 • 실증 환경 구축 지원, 실증을 위한 규제·인허가 대응 지원
자금 지원	•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추천(최대 10억 원) • 투자사 및 펀드 운용사(기관)에 기업 추천 • 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 및 AC·VC 등 민간투자사 연계 지원
판로 지원	•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 연계 및 홍보 • C-STAR Awards 등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및 대외홍보 지원 •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천안 C-STAR 사업성과(2024~2026.4)

선정 기업 수(1기~4기)	누적 투자유치 현황	누적 계약성과	IPO
29개사	1,470억 원	6,900억 원	1건 (제닉스로보틱스)

지자체가 설계하고 지원기관이 육성하는 천안 창업생태계

천안시는 'C-STAR' 브랜드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산업 전반의 인프라와 지역 펀드를 조성하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천안과학산업진흥원·지역 내 대학에서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는 기술 실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천안시

'스타트업 혁신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천안시 대표 창업기업 육성사업인 'C-STAR'를 직접 운영한다. 2022년 이후 4년간 *434개사를 발굴·육성*했고, 미래 유니콘 C-STAR는 4기까지 29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1,47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6,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천안 지역 창업기업의 발굴·육성부터 성장·투자·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지역 창업 전담기관*이다. 충남창업마루나비 입주공간 지원과 모두의창업, 창업도약패키지, TIPS 등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액셀러레이터로서 누적 운용자산 약 207억 원, TIPS 24개사, PoC 18개사 (2026년 상반기 기준)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 중기부 지방시대 벤처펀드로 *1,000억 원 규모의 지역 펀드*를 조성했으며, 2026년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충남」을 천안에서 개최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천안 창업생태계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현장에 집행*하고 *혁신 거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국 1호 그린스타트업타운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주도하였다. 충청남도 및 천안시를 비롯한 지자체, 그 밖의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기술창업기업의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CISTEP

천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과학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창업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C-STAR'의 공동 주관기관이다.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수행하며 산·학·연 협력 거점인 *천안 SB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콘텐츠진흥원 CHUNGNAM CONTENT AGENCY

*대한민국 제1호 복합형 스타트업파크*인 천안그린스타트업타운(INNOST타워)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80개사·30개 기관*이 입주해 TIPS 연계 투자와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창업자 주거공간인 코리빙하우스도 맡고 있다.

국립공주대학교 · 나사렛대학교 · 남서울대학교 · 단국대학교 · 백석대학교 · 백석문화대학교 · 상명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연암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호서대학교

천안에는 *12개 대학*이 인재를 육성하며 초기 창업기업을 보육하고 있다. 이 중 *7개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호서대학교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국대학교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되어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대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창업지원사업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KATECH 한국자동차연구원

천안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핵심기관*을 맡고 있다. 미래차 스타트업 R&D를 지원하는 강소특구 캠퍼스를 운영하며 기술 이전과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한다.

충남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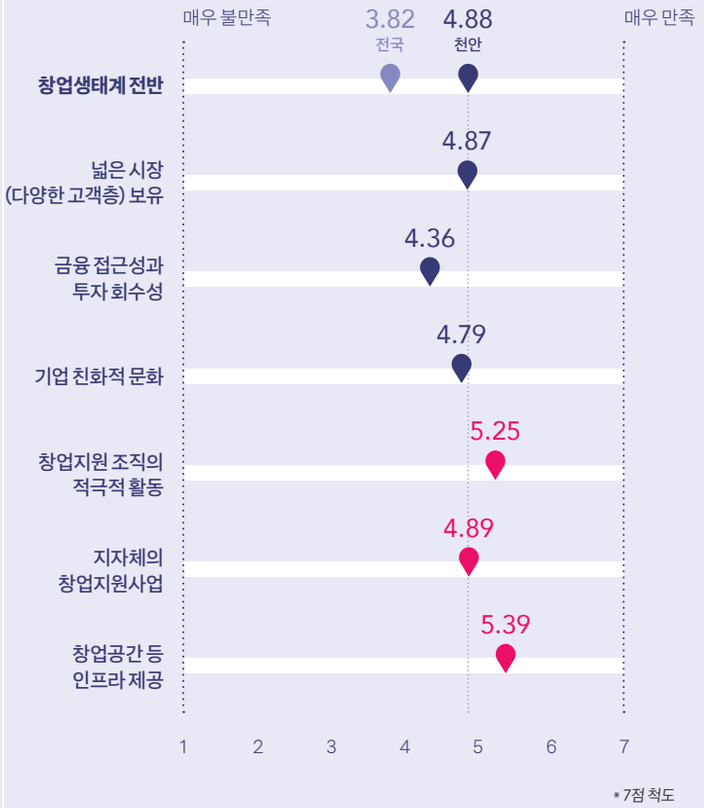
1,598억 원을 투입해 2024년 4월 개소한 *천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운영한다. 차세대 OLED 공정 실증과 시험·평가, 장비 검증을 지원해 소부장 창업기업이 *양산 전 단계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자가 바라본 천안 창업생태계

천안에 본사가 있거나 주 활동지역이 천안인 창업기업 관계자 84명을 대상으로 천안 창업생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6년 7월)

천안 창업생태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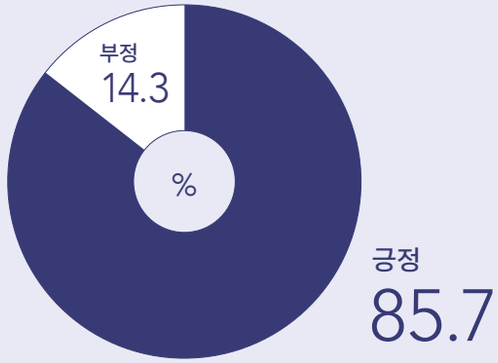
천안 내 창업기업들은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창업공간 등 인프라 제공***(5.39점), ***창업지원조직의 적극적 활동***(5.25점),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4.89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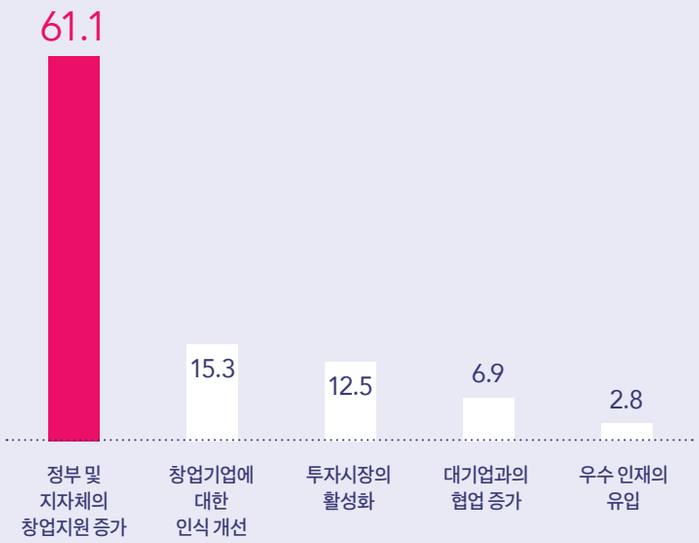
* 전국 결과는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2025)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적 분위기 평가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해석에 주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망 및 이유

응답자의 ***85.7%***는 전년 대비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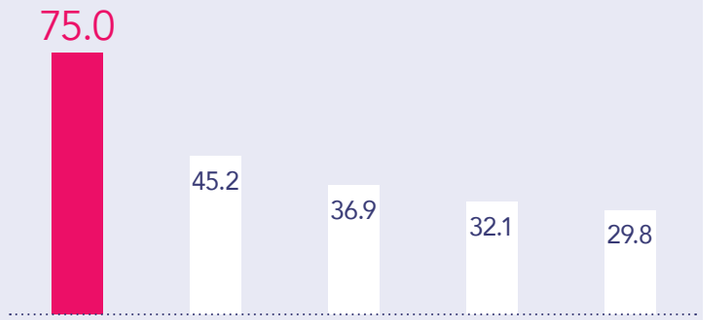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72명) 중 61.1%는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증가***를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망 이유로 선택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한 창업생태계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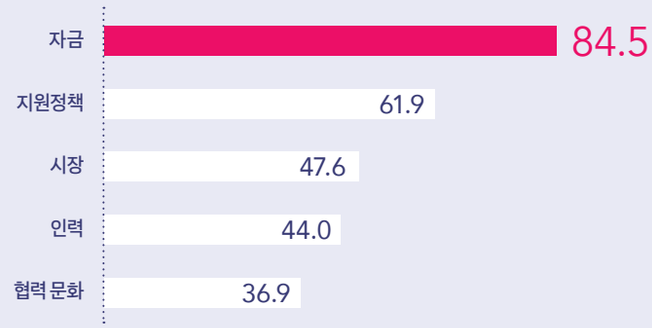
(1+2+3순위)

창업지원기관(75.0%)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으며, 그다음으로 대학(45.2%), 동종업계 스타트업(36.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1+2+3순위)

천안 지역 발전을 위한 요인으로 ***자금***(84.5%)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원 정책(61.9%), 시장(47.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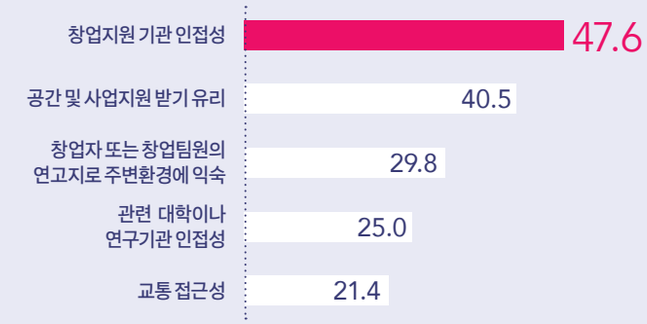


창업자가 바라본 천안 창업생태계

천안에 본사가 있거나 주 활동지역이 천안인 창업기업 관계자 84명을 대상으로 천안 창업생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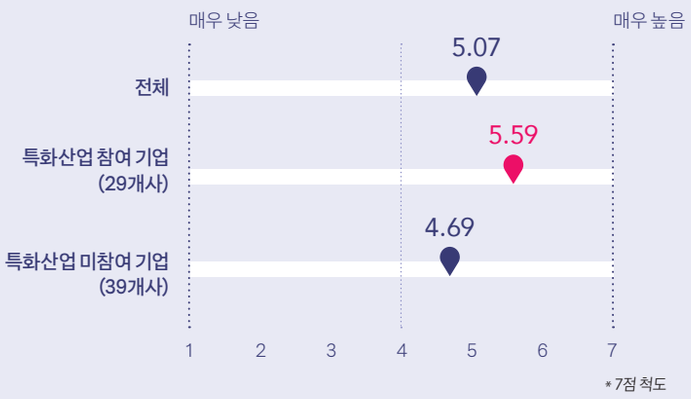
천안 지역 소재의 장점(1+2순위)

창업지원기관 인접성(47.6%), 공간 및 사업지원 수혜 유리(40.5%), 창업자나 팀원의 연고지(29.8%)가 주요 장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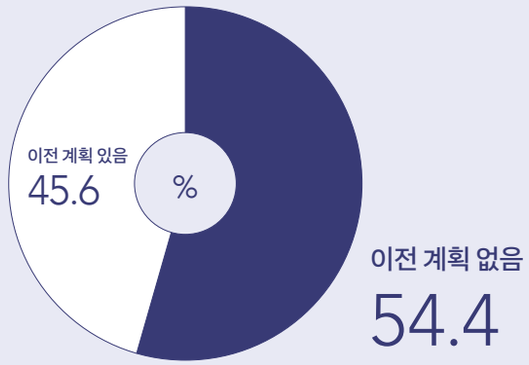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수준

천안 특화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자동차 부품)을 인지하는 응답자들(68명)은 천안의 *특화산업이 전국 대비 경쟁력이 높다*(5.07점)고 응답하였다. 특히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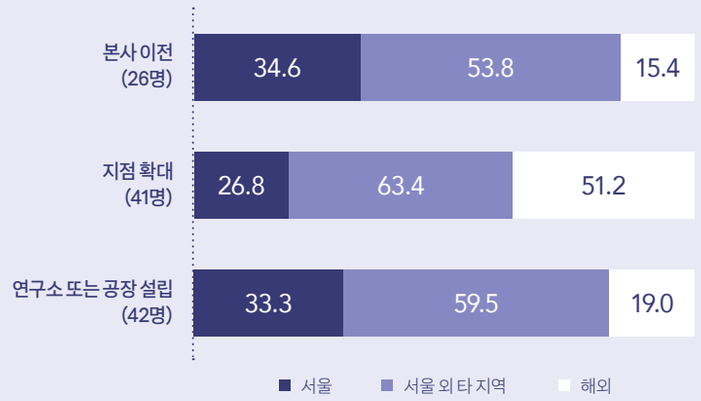


타 지역으로 이전·확장 계획

타 지역으로 *본사 이전 계획이 없는 경우*는 54.4%, 있는 경우는 45.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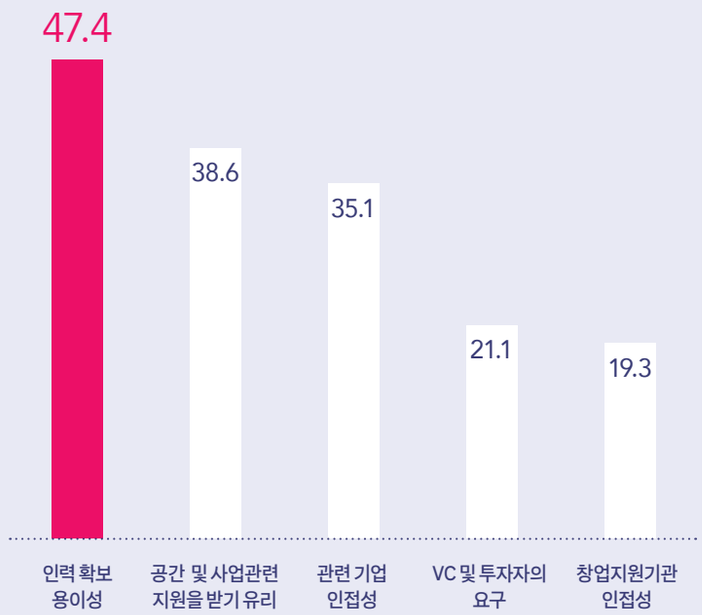


이전 유형에 따라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사 이전, 연구소·공장 설립, 지점 확대 모두 *서울 외 타 지역*을 선호하였다.



타 지역으로 이전·확장 이유(1+2순위)

*인력 확보에 유리*해서 이전·확장을 고려하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으며, 공간 및 사업 지원 유리(38.6%), 관련 기업 인접성(35.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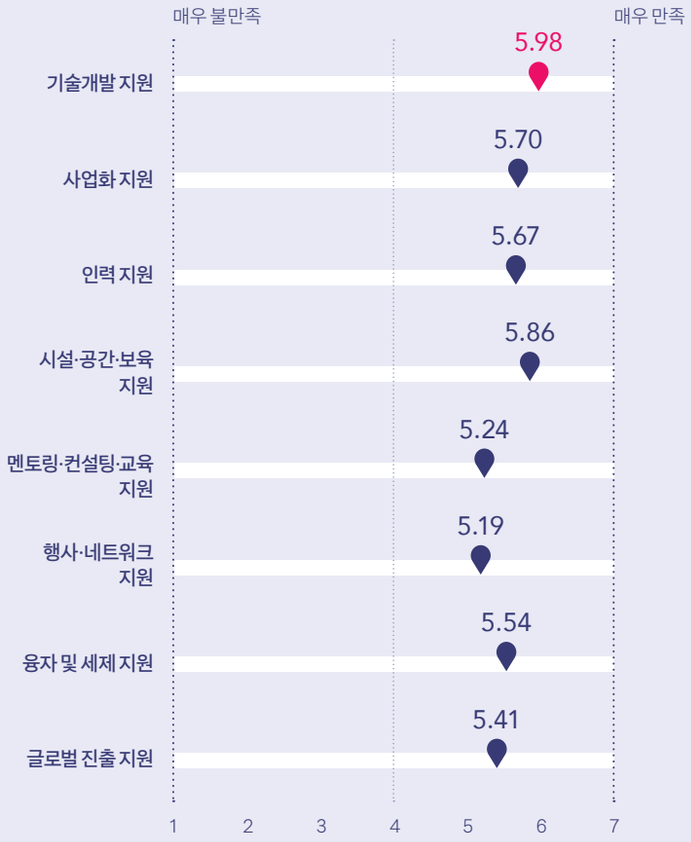


창업자가 바라본 천안 창업생태계

천안에 본사가 있거나 주 활동지역이 천안인 창업기업 관계자 84명을 대상으로 천안 창업생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6년 7월)

정부 지원사업 만족도

정부 지원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기술개발 지원***(5.98점), 시설·공간·보육 지원(5.86점), 사업화 지원(5.70점)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79명을 대상으로 집계

* 7점 척도

정부 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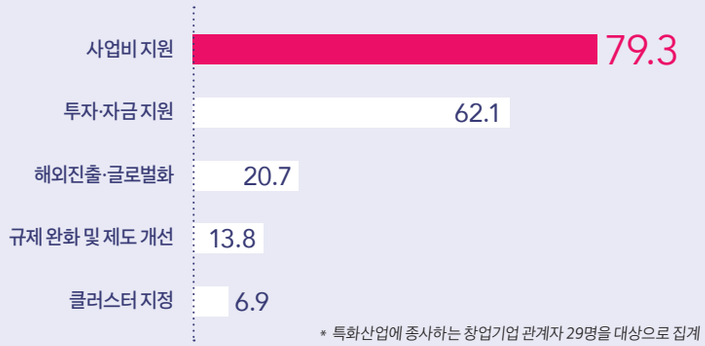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사업은 ***사업화 지원***(77.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융자 및 세제 지원, 기술개발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운영 애로사항(1+2순위)

기업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영업 및 마케팅***(61.9%), R&D 및 시제품 제작(42.9%), 생산 공간 및 시설·장비 확보(25.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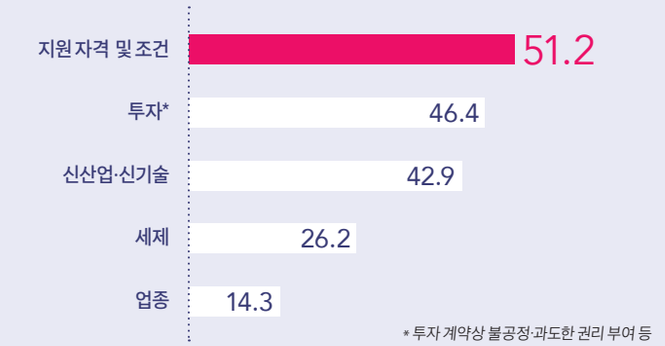
사업비 지원(79.3%), 투자·자금 지원(62.1%)에 대한 정부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업기업 관계자 29명을 대상으로 집계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규제 완화 필요 분야(1+2순위)

지원 자격 및 조건(51.2%), 투자(46.4%)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투자 계약상 불공정·과도한 권리 부여 등

HBM 생산의 핵심 거점, K-반도체의 마지막 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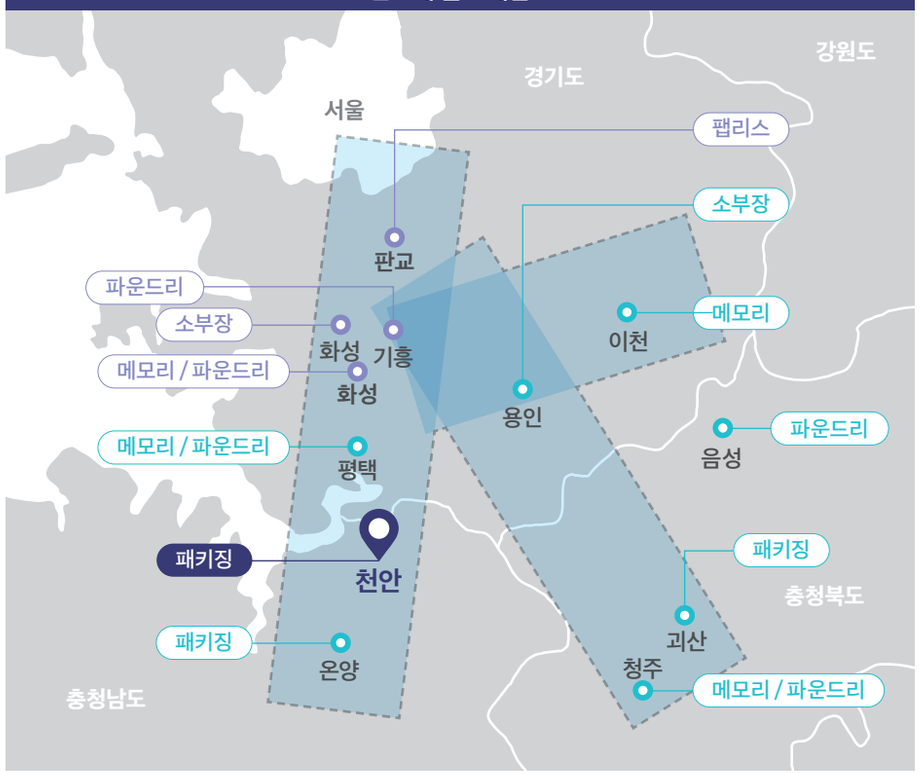
반도체

천안은 삼성전자 천안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기능이 집적된 지역이다. 천안시는 이를 2026년 전략 유치 분야로 정하고 협력사와 기술창업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후공정·패키징 중심의 K-반도체 벨트

천안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후공정, 즉 패키징과 테스트다.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은 전공정의 일부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적었다. 하지만 *HBM(고대역폭 메모리)*이 주력 제품으로 떠오르면서 테스트, 패키징, 적층 기술 등 후공정의 중요성이 커지자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3일반산업단지 내 천안캠퍼스의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약 10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천안을 *HBM 생산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투자이다. 해외의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후공정 협력사 생태계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 창업기업 입장에서 후공정은 소재·부품·검사장비·공정 소프트웨어 등 *진입 가능한 세부 영역이 넓고*, 대기업과의 실증과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제3차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서 천안·아산이 반도체 후공정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를 형성할 전망이다.

K-반도체 벨트 개념도



첨단산업 수도를 향한 천안시의 노력

천안시는 삼성전자의 투자를 기점으로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첨단소재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천안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456개사*가 집적되어 있으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천안시는 *Fast-Track*을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지원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투자 과정에서 공장 건축 허가를 사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했으며, 착공과 사용 승인까지 전 과정을 빠르게 지원하였다. 향후 이러한 *사전검토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투인테크 | **오동석 대표이사**

투인테크 (2021년 10월 창업)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파티클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건식 세정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세한 이물질만 들어가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효과적이다. SK하이닉스의 사내벤처 출신으로 2024년 10월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천안 C-STAR 4기 선정기업이다.

"우수한 교통망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수월하며, 반도체 관련 대·중견기업과 가까워서 PoC에 유리한 도시"

천안은 충청권에서 인력을 확보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 우수한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권에서도 인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천안의 기업지원기관에서 반도체 관련 대·중견기업과 PoC 과정을 지원하며, 가까운 위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HBM 사업부가 천안에 있고 SK하이닉스는 청주에 있기 때문에 천안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창업기업이 영업하기에 유리한 위치이다.

향후 천안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PoC가 종료된 이후 후속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PoC를 통해 성과를 낸 뒤 양산을 위해 소재·부품을 수급하거나, 공장 설립이 필요한 시점에는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나 지원기관의 자금이 공급된다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생산의 58%,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창업

디스플레이

천안·아산은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의 58%를 차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공정 실증 인프라가 잇따라 들어서며 소재·부품·장비 창업의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도약

천안·아산은 2021년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이후 천안에 5개 기존 산업단지와 1개 신규 산업단지로 구성된 산업 기반이 갖춰졌고, 2023년 충청남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면서 디스플레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천안·아산에서 *국내 디스플레이의 58%*가 생산되며, 천안에는 아산의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하는 *200여 개 기업*이 집적해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시장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다. 협력사 출신 기술인력의 OLED·마이크로LED·퀀텀닷 소재·부품 창업이 활발한 것도 이러한 집적의 결과다.

개발부터 양산 검증까지, 도시 안에서 끝나는 실증

디스플레이 창업기업이 가장 넘기 어려운 문턱은 양산 라인에 준하는 조건에서 공정을 검증받는 일이다. 천안에는 이 문턱을 낮추는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생산라인과 유사한 *공공 테스트베드*가 있으며, 단지 내 입주기업의 실증 과정을 지원한다. 2024년 개소한 *천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차세대 OLED 공정 실증과 시험·평가, 장비 검증을 지원한다. 여기에 아산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이 더해지면서 천안·아산 권역은 *R&D부터 실증과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주요 성과 (2020~2024)

입주 기업	200개사 증가
고용 인원	3,018명 증가
기업 투자액	2.7조 원 증가
OLED 소부장 국산화율	2019년 65.0% ▸ 2023년 71.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

Mini Interview



아라 | **김진배 대표이사**

아라 (2019년 6월 창업)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라는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도입하는 로봇시스템이 주력 제품이다. 이 시스템은 대면적의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을 빠른 속도로 이송하고 포장하는 것이며, 경쟁사 대비 10~15% 이상 빠른 속도가 특징이다. 천안 C-STAR 4기 선정기업이다.

"디스플레이 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다수 밀집한 생태계"

2022년 충남테크노파크의 충남스타기업 사업에 선정되면서 중기부 R&D 및 성장사다리, 디스플레이 특화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상태이다. 또한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마케팅, 기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았다.

천안 디스플레이 산업의 강점은 천안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산업 내 부품 업체, 정밀 가공 업체, 기술인력 등이 천안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대기업 1차 협력사가 많은 성남이나 화성과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충남테크노파크 등의 특화산업 지원기관이 천안에 있다는 점도 산업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천안 디스플레이 산업이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제조 현장의 AI 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제조기업의 AI에 대한 이해나 활용은 더딘 상황이다. 지역 제조기업에 AI를 도입하고 활용 과정을 지원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충남 최대 부품 집적지에서 미래 모빌리티 창업 거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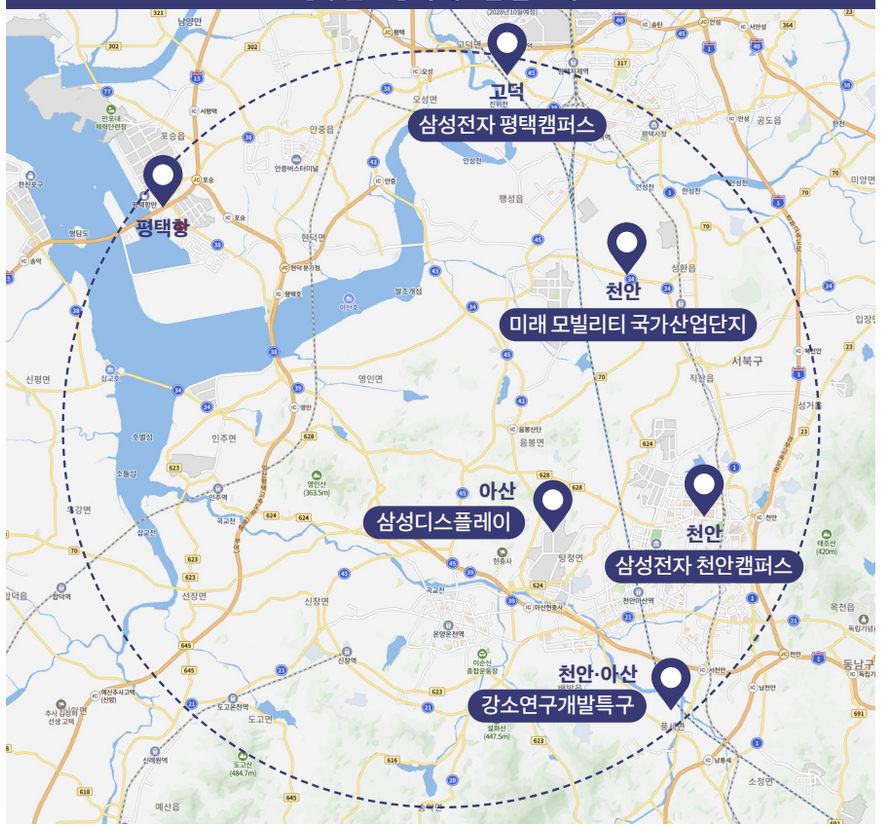
미래 모빌리티·자동차 부품

천안은 충남 최대의 자동차 부품 집적지이자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소재지이며,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곳으로 전장부품 중심의 기술창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천안 자동차 부품 산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천안은 현대자동차·기아 협력 부품기업이 밀집한 ***충남 최대의 자동차 부품 집적지***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을 기술 핵심기관으로 하는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다. 2021~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된 1단계 강소특구 사업에서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기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6년에는 고성능·고효율 전장 시스템 및 ***차세대 SDV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고, 특구 면적도 확대되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강소특구 내 창업기업의 기술 발굴·BM 개발·투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중부권 초광역 제조업 벨트 개요



평택–천안–아산을 연결하는 초광역 제조업 벨트의 탄생

2023년 국립축산과학원 성환종축장 이전 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즉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부품기업의 집적 기반이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천안 성환읍은 행정구역상 평택과 아산의 접경지역으로 평택의 반도체 파운드리와 항만 시설, 천안의 미래 모빌리티 및 반도체 후공정, 아산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하나로 연결하여 ***초광역 제조업 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다. 미래 모빌리티 창업기업 또한 대규모 테스트필드에서 비즈니스모델을 실증·검증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주요 성과(2021~2025년)

연구소기업	신규창업	기술이전	투자연계	매출
43개사	66개사	151건	351억 원	918억 원

Mini Interview



지앤티 | **손일수 대표이사**

지앤티 (2023년 11월 창업)

전기버스·전기트럭 등 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컨버터, 인버터 등의 전력변환 핵심 부품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전력변환 기술을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방 발전기, 태양광 인버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창업 2년 6개월만에 독일의 자동차 기업(PRETTL)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에 성공하였다. 천안 C-STAR 3기 선정기업이다.

"완성차 업체부터 부품 업체와 연구·지원기관이 인접해서 협력할 수 있는 지역"

2023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통해 타사 제품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전기차용 컨버터 등 주력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남테크노파크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2024년에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의 '다국적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독일의 PRETTL 그룹을 만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약 6,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7년 3월부터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하였다.

모빌리티 산업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장부품, 전력변환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천안은 제조기반 기업과 연구·지원기관이 인접해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필요한 과정을 지역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향후 천안의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장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시제품이나 시험·인증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화·투자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안 창업생태계를 논하다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

천안시청 | **장기수 시장**



왜 천안에서 창업을 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이기 때문이다. 천안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은 창업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무대이다. 또한 *12개 지역 대학*과 연구·지원기관을 통해 기술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도 갖추어서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천안의 지역경제에 창업생태계와 창업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창업기업은 천안의 산업을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천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도시이다. 다만, 앞으로의 경쟁력은 기존 산업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얼마나 빠르게 접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은 천안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교체’와 ‘천안 대전환’*을 이끌 중요한 주체이다. 향후 천안의 창업기업이 기존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 창업생태계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기업과 인재가 천안에서 성장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도시 전체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안은 입지조건과 제조업 기반, 대학, 창업지원 인프라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각각의 자원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공간과 투자뿐 아니라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갖춰, 창업가와 전문인력이 천안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Inflow-Outflow가 가장 활발한 창업생태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김성근 대표이사**



천안 창업생태계에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천안을 포함한 충남의 창업생태계에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충남에서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천안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도시이다. 다만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수요기업과의 연결, 투자, 사업화,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 과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전국 단위 또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간, 사람 간, 인프라 간의 연결*이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천안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본 천안의 특징은 천안 밖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천안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색이 명확하기보다는 둥글둥글한데, 이것이 천안의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를 보면 전 세계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형성된 지역이기에 타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쉽다. 천안 역시 외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외지인이 적응하기 쉽다. 또한 천안시청에서 ‘C-STAR’ 사업을 포함해서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오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창업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잠재력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천안 창업생태계의 미래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비전은?

현재 수도권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하다.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다. 이는 창업기업이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비수도권인 천안을 찾을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천안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오는 *진입(Inflow)*과 천안에서 글로벌로 나가는 *진출(Outflow)*이 가장 활발한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또한 이러한 창업기업의 흐름을 지원하는 센터로 포지셔닝하고자 한다.

천안 창업생태계를 논하다

“지역 대·중견 제조기업의 탄탄한 인프라와 창업기업의 혁신 기술을 유기적으로 잇는 오픈이노베이션 거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정언 청장



천안 창업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수요와 해결 방안은?

천안 창업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의 핵심 수요는 *TIPS 등 민간 투자 유치*, 지자체·대학·투자사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현장 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되어 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운영과 현장 방문 소통으로 제도적·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천안시가 주최하는 대표 스타트업 행사 *‘천안 C-STAR Awards’*에도 함께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역시 우수 기업을 포상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천안을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 되는 혁신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천안 창업생태계가 첨단 주력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 대·중견 제조기업의 탄탄한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유기적으로 잇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가능한 *대규모 테스트베드와 실증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여 우수한 R&D 고급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특화 펀드 조성 및 민간 투자(VC) 연계 프로그램이 확충된다면 전통적인 제조업과 미래 첨단 기술이 융합된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비창업자가 창업 시 체감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예비창업자가 진입 단계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격차*이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천안 창업생태계와 협력하여 이러한 심리적·정보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모두의 창업’*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변을 다지고 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용기를 얻은 예비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창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 저변 확대와 사업화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예비창업자를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공공에서 나온 창업기업을 민간 자본으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

JB벤처스 | **유상훈 대표**



천안 창업생태계에서 JB벤처스의 역할은?

천안에서 *민간 자본으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최초의 플레이어*다. 천안이 고향이며,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충청남도 ‘청년 CEO 500’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창업을 했다. 이후 대기업에 매각하며 엑시트를 했다. 창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역에 민간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해 매일 서울로 올라가서 투자자와 미팅을 했다. 엑시트를 한 이후, 지역에 민간 투자자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창업가들의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JB 주식회사와 협업하여 JB벤처스를 만들게 되었다. 지역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투자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천안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은?

대기업 협력사 출신 창업가가 많은데, 산업현장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면 *기술을 실증하기 좋은 도시*가 천안이다. 특히 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부품·장비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지자체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현재 천안의 창업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스케일업 전략까지 고려하는 기초 지자체는 천안이 유일*하다. 투자사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정책 건의 등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

향후 천안 창업생태계에 필요한 요소는?

천안에 대학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창업지원사업은 대부분 천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지원사업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중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민간 자본 투자까지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IBK 창공 프로그램이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창업 7년 이내 혁신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모태펀드의 지역 의무투자비율이 증가하고, 국민성장펀드도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 공공의 투자를 받아서 나오는 초기 창업기업은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업 중 가능성 있는 기업을 *민간 자본의 영역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안 창업생태계를 논하다

“전통 제조 거점에서 피지컬 AI·신기술 융합 창업도시로의 진화”

충남콘텐츠진흥원 | 김동규 부장



그린스타트업타운(INNOST)의 조성 계기와 향후 목표는?

기존의 창업지원시설이 외곽 산단이나 대학으로 분산되어 지원기능의 중복이 있었고, 기업 간 네트워킹이 단절되는 현상이 있었다. 개방형 창업 공간과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스타트업파크 사업과 친환경·스마트에너지 기술을 실증하는 그린스타트업타운을 결합하여, *대한민국 대표 창업밸리*를 목표로 집적화된 창업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향후 목표는 입주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스케일업까지 *끊임없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스타트업-투자사-지원기관 간 밀착 네트워킹을 통해 고밀도 혁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천안 창업생태계에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은?

진흥원은 천안역세권 랜드마크인 ‘그린스타트업타운(INNOST)’을 총괄 운영하며, 하드웨어 제조 중심의 천안을 소프트웨어·AI가 융합된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혁신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안의 12개 대학, 지자체, 민간 투자자를 긴밀히 연결하는 *중앙·지방·민간 협력 허브*로서 지역 유망 창업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린스타트업타운(INNOST)의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시 주력하는 점은?

2020년 8월 시설 일부가 개소하여 2026년 기준으로 약 80개 창업기업이 입주하였다. 2025년까지 *TIPS 선정 기업 56개*, 누적 매출액 1,095억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운영 시 주력하는 점은 먼저 창업기업의 판로, 투자 및 정주 여건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피지컬 AI(Physical AI)* 및 모빌리티 융합에 특화된 딥테크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및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삼는 *메가 리빙랩*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조업에서 기술창업으로, 창업기업에서 성장기업으로 자리 잡는 도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 **이상학 부장**



천안에서의 창업을 추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천안은 기술 또는 제조 창업이 많다. 특히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 제품 및 공정을 개선하는 형태의 기술창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천안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산업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누가 고객인가’, ‘실제로 구매할 것인가’,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천안에는 다양한 제조기업과 산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기술창업기업이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천안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에서 집중하는 요소는?

창업기업의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성장까지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창업 초기에는 입주공간,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지원이 달라진다. 특히 창업기업이 고객 확보·투자유치·인재영입 등을 지역 내에서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천안에 있는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창업기업이 해결하고, 지역기업을 *첫 번째 고객 또는 실증 파트너*로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지역경제와 창업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천안의 주력 산업에서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력 산업을 단순히 창업 분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수요와 스타트업의 기술을 연결*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기술적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 연결해야 한다. 이후에는 PoC나 실증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구매·투자·공동개발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지역 앵커기업의 수요 발굴, ② 기술창업기업 발굴, ③ 실증·PoC 지원, ④ 투자 연계, ⑤ 후속 R&D 및 판로 지원이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천안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기획하다

현재 천안 창업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천안 창업생태계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할까? 천안 창업생태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재 창업생태계에서 활동 중인 6명의 전문가와 함께 천안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SOAR 기법을 활용하여 천안 창업생태계의 강점(Strengths), 기회(Opportunities), 비전(Aspirations), 전략(Results)을 도출하였다.

좌측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해정 씨씨벤처스 대표
박홍기 호서대학교 본부장
윤홍준 충남콘텐츠진흥원 선임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김성하 그래비티벤처스 상무
김재윤 충남테크노파크 과장



Strength-Opportunity

대·중견 제조기업의 실제 수요와 연계된 기술 실증(PoC) 환경

천안 미래워크숍에서는 천안 창업생태계의 강점으로 지역에 자리 잡은 ***대·중견 제조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 실증(PoC)***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인재와 기업이 자리 잡기 쉬운 도시 분위기***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분야 대·중견기업의 공장이 있으며, 타 지역에서 천안으로 인구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에 기반한다. 여기에 수도권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비수도권 혜택을 받는 입지, 대학의 창업지원사업 대부분을 지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등이 강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강점에 미래 변수를 결합해 도출한 기회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수도권 개발자와 창업가의 유입, 외국인 인재의 정착 등이다. 이는 천안이 수도권과 해외의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였다. 둘째는 ***대·중견 제조기업 연계 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것이다. 향후 제조 AX와 피지컬 AI 시대에 천안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실증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Vision-Strategy

지속가능한 글로벌 창업투자특별시

두 가지 기회를 토대로 천안의 미래비전을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다. 천안은 지역의 특성상 수도권의 인재가 유입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도권으로 인재가 유출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천안에 들어온 인재들에게 천안에 거주해야 할 명확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다른 키워드는 ***'창업투자특별시'***가 제시되었다. 지방정부와 민간의 투자 재원이 결집하여 창업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이 천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천안 창업생태계의 미래 비전을 설정해 보면 ***'지속가능한 글로벌 창업투자특별시'***이다. 천안이라는 도시의 핵심 역량은 ***인재와 기업의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입은 유지하고, 유출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인재와 해외 자본이 천안에 유입되고 지역 대학이 글로벌화되며, 탄탄한 투자 기반을 통해 ***기업과 인재가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앵커기업 연계 기술 실증 및 AI 첨단제조 창업 거점 조성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인재 확보

지역 투자 재원 확대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천안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기획하다



CURRENT

- 대·중견 제조기업의 실제 수요와 연계된 기술 실증(PoC) 환경
- 인재와 기업이 자리 잡기 쉬운 도시 분위기
- 수도권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비수도권 혜택을 받는 입지
- 12개 대학을 통해 창업지원사업 대부분을 지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 지자체의 창업정책 역량
- 교통 네트워크 허브 기능이 가능한 도시

FUTURE

- 대·중견기업의 제조 AX 고도화 수요 확대에 따른 기술 실증 및 공급 기회 창출
- 서울·경기권 접근성을 바탕으로 고도화·자동화 사업 확대
- 인재·기업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대·중견기업의 천안 정착과 일자리 제공
- 외국인 인재가 들어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도시로 부상
- 12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 창업교육 및 대학발 창업기업
- 천안 지역펀드 조성과 단계별 투자 재원을 통한 IPO·M&A 사례 창출

- 지속가능한 글로벌 창업투자특별시, 천안
-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세계 선도기업 발굴을 통한 글로벌 창업투자특별시, 천안

핵심 가치 지속가능성, 창업투자특별시, 글로벌, 인재 양성, 직주락(일·주거·여가)

- **앵커기업 연계 기술 실증 및 AI 첨단제조 창업 거점 조성**
  - 국가전략산업 앵커기업 유치·연계를 통한 기술 실증 및 적용 체계 구축
  - 천안형 창업인재 발굴·기업 육성을 위한 밸리 조성 및 유관기관 역량 결집
  - 새로운 기회 창출과 연계·협업을 위한 PoC·실증 지원 규모 확대
-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인재 확보**
  - 지자체·창업유관기관·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 지역 유입 창업가·인력을 위한 주거·교육 등 정주 혜택의 제도화
  - 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지속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장
- **지역 투자 재원 확대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천안 소재 VC의 지역펀드 결성 확대 및 대·중견기업 출자 파트너십 강화
  - 공공·대학 등 생태계 관계자 협력을 통한 민간 파트너십 강화



천안에서 스타트업을 한다 = 인재가 모이고, 기술을 검증한다

STARTUP ECOSYSTEM REPORT
2026 CHEONAN

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 Vol. 12

천안



2026

CHEONAN

창업진흥원 KOREA START UP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